

전남 '에너지 수도' 도약... 행·재정적 뒷받침 절실

전남 에너지 주권 지키자

신안 '해상풍력 1단지' 3월 운영
수소에너지 기술 연구·기업 투자
약취·오염 줄인 바이오가스 확대
전남도,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규제 개선·초기시장 진입 지원"

전남도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고 있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실질적 가
치를 경제활동 분야에 접목한 '블루 이코
노미(Blue Economy)'를 내세우며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에 나서고 있다.

다만 주민 수용성 및 환경 보호를 비롯
해 전력다소비 기업 이전을 위한 지역인
재 발굴 및 연계 산업·기업 육성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별도 가장 눈
에 띄는 부문은 해상풍력 분야다. 전남도
는 안정적인 바람 자원을 보유한 서남해
안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신안군 자
은도 북서쪽 9km 해역에 96MW 규모의 '전
남해상풍력 1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23년 건설에 들어가
지난해 12월18일 터빈 설치를 완료했으
며 오는 3월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을 계
기로 본격적인 민간 투자를 통해 향후 세
계 최대규모인 8.2GW 용량으로 조성될
예정인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
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원 항만 등
배후단지 및 해상풍력 터빈 제조업체 입
주, 관련 부품 공급망 구축으로 관련 산업



전남도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고 있다. 사진은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9km 해역에 조성중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김양배 기자

의 연쇄적 발전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량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및 기업 투
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수소산업 분야 관
련 기술력과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12곳을 선정, 올해까지 국
비 9억원에 도비 9억원을 매칭한 총 18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다. 최종 선정된
12개 기업에는 수소분야 진입기업을 위
한 엔트리, 수소산업 초기 진입기업을 위
한 테크, 수소산업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
업을 위한 비즈 등 프로그램별 맞춤형 지
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목포와 순천이 지난해 환
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
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바이오가스 확대에
도 나선다. 양 지자체는 2028년까지 바이
오가스화 시설 완공을 통해 하루에 유기
성 폐자원 550톤을 투입, 약 3만8861N㎥
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
된 바이오가스를 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
하거나 판매할 경우 매년 약 54억원의 기
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는 악취·환경오염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순
환 모델로, 농촌이 많은 전남지역에 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주민 이익 공유제 확대를 통한 수용

성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신안군의 경우 지난 2018년 '신재
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
를 제정,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태양광
발전 현금성 이익배당을 현지 주민에 지
급했다. 특히 신안군은 배당금 지급에 있
어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인 '1004섬 신
안 상품권'을 지급, 신안군 관할 상점 및
관광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
기 활성화 및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
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남도가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1번
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연
계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를
바탕으로 한 인재 육성 등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박창환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들이 잠
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차별화된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글로벌 RE100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용 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전문가 보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실
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안)'은 '전남의 햇빛·바람을 타고,
글로벌 RE100 중심지로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재생에너지 발전특구 △RE
100 솔루션 △RE100 기본소득 등 4대 분
야 22개 전략과제와 재생에너지 4법 제·
개정, 추진단 운영 등 2대 추진체계 7개
과제가 담겼다.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신년 특집 주요 지면

뱀띠 청년의 희망가 ▶5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7면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8면

전남-단체장 새해설계 ▶9-10면

SAMSUNG



미래로 함께 가는 2025년

모두가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삼성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며 함께 희망을 키워갑니다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